23-7,8 2023 년 7,8 월달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7,8 월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캠퍼스는 방학중이었고 주안에 행복한 교회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철은 무더위와 싸우다가 금방 시간이 지나는 것은 한국이나 이곳 밴쿠버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잠시 예배때 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잘 아는 말씀인데 현재 저의 사역 상황속에서 너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강도는 변명할 여지 없이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간절함을 담아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주님은 받아드립니다.

북미주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신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 근본에는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 삶, 쾌락적인 삶, 이런 삶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나 교회나 탁구를 도구삼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1 년 반이 지났는데 캠퍼스에서는 이제 4 명정도의 학생을 얻어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될 시점에 졸업을 하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교회사역을 보니 여전히 복음보다 탁구만 붙드는 모습,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니 강도와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곳 사역에서는 오래참음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이 사실을 붙들고 캠퍼스와 다민족 사역에 임하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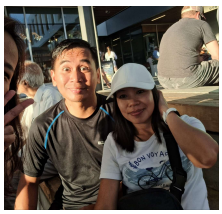
2. 7-8 월 사역을 돌아보며

1) 캠퍼스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동일하겠지만 이곳에서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하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벌아야 합니다.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풀타임 일을 찾아 8 월까지 일을 합니다. 6 월 중순부터는 기말고사 시즌으로 들어가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7.8 월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9 월 초에 개강하여 10 월에 중간고사 그리고 12 월 중순부터는 또 다시 기말고사 시즌에 들어가 12 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고 학기중에는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를 잘 피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방학중에는 집근처에 가서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 월 개강하고 10 월 중순 중간고사 시작전 그리고 11 월 한달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야 겠습니다. 좋은 지체들을 만날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주안에 행복한 교회 예배”는 7-8 월에, JBCC, 가정등에서 드려졌습니다.



사실 JBCC 에서 탁구다이를 임대해 주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가 여름철 시즌은 7 월달에는 JBCC, 8 월달에는 저희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후에 탁구교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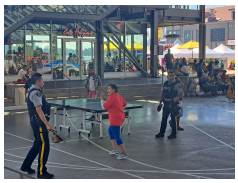
예배를 드린지가 1 년 6 개월이 되었고 고정맴버 10 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맘속에 이제는 예배의 폼으로 바꾸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랜트비를 아낄수 있었지만 예배답게 드리기에는 SHIPYARD 는 너무 산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따로 건물로 들어가서 하고 그 뒤에 SHIPYARD 에 와서 탁구교제 하기로 맘을 먹고 7 월달에는 JBCC 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찬양하고 대표기도 세우고 저는 이제 단상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빔프로잭터와, 엠프와, 마이크와, 키보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기도하던 중에 지난번 장신혜 전도사님 부부로부터 기증 받은 키보드와 이번에 친구 목사인 허성백 선교사님 교회에서 엠프와 믹서기를 기증받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악기를 운반해야 하기에 차도 나중에는 봉고차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가져가야 할 것이 더 많아져서 좀더 분주해 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답게 드리게 됨을 인하여 제 맘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찬양팀도 만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겠다고 맘 먹었습니다. 계속 이를 위해 찬양팀 맴버확보와 새로운 맴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월달에 들어와서는 숫자가 이렇게 10 여명 때라면 랜트비를 아끼고 저희 집에서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집에서 3 번 정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레크레이션센타, 마켓, 가정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말씀보고 예배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9 월까지는 계속 가정에서 예배하고 예배후 SHIPYARD 에서 탁구교제할 것 같고 10 월부터 새로운 레크레이션센타를 찾아 예배하고자 합니다.

3) SHEEPYAR PINGPONG FELLOWSHIP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예배를 JBCC 에서 드리고 그 이후에 SHIPYARD 에서 2-3 시간 탁구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DELBROOK RECREATION CENTER 에서 4-6 시 두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이란인 할아버지들과 탁구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모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10 여명 있는데 모두가 할아버지들이고 이란 사람들입니다. 중국인 4 명 한국인 할머니 1 분도 있고 다른 나라 콜롬비아 시리아 싱가포르 타이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완전 ENJOY 의 삶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이나 영적인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회로 직접 모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단계로 탁구대회와 피크닉, 코이노니아교제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을 1-2 명씩 보게 됩니다.

4) 핑퐁클럽과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PINIC

8 월이 다가기전에 피크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예외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아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변가에서 좋은 날씨 속에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듯한

좋은 야외 풍경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수 많은 팀들이 주말이면 나와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참 익숙한 광경입니다. 올해는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 여명 참석하는 모임을 이루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5) 가족 이야기

아내는 계속하여 어린이집 교사과정을 수료중에 있습니다. 아침 7 시에 저와 같이 집에 나와서 아내를 학교로 가고 저는 오전 일터로 갔습니다. 아내는 매일 숙제가 주어지고 새벽 2-3 시까지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8 월 중순부터 2 달간 어린이집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과정이 수료됩니다. 계속하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저는 오전 8-2 시까지 BOTTLE DEPOT 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캠퍼스를 방문하고 뒤에는 7-새벽 1 시까지 청소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생활비와 캠퍼스 사역비 교회사역비가 들어가게 되어 쉽게 일을 그만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는 오전중에 하는 일이라도 그만두고 캠퍼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을 할때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좀더 캠퍼스에 집중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현지 외국인 교회와 현지 한인교회에서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보내어 주소서, 그리고 한국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후원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들 형준이는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9 월 초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가게 됩니다. 지난번 밴쿠버에 방문한 요한이는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한나는 대학원공부와 병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신 그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3. 9 월달 기도제목

1) 주일 예배 와 핑퐁교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렌트를 찾고 있습니다. 10 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다시 새학기 매주 월요일 캠퍼스 핑퐁교제와 전도 일대일 공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3) 9 월 30 일 초청 COINONIA(갈릴리교회초청 찬양집회와 핑퐁대회)가 델부룩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3) BONI 가족, 동수형제 , JONA, CATHY 자매가 일대일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4) 매달 2000 불 정도 교회 사역비가 잘 마련되도록

10 캐나다 후원교회와 20 개 한국 후원교회가 준비되어서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5)아내의 어린이집 교사 공부가 10 월달 까지 계속되는데 잘 적응하고 자격증을 받도록

6) 한국의 후원교회와 후원 동역자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7)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준이의 대학공부와 요한의 새직장, 한나의 공부와 간호사 생활)